



금융감독원

## 보 도 자 료

금융보안원  
FINANCIAL SECURITY INSTITUTE

보도	2025.5.22.(목) 09:40	배포	2025.5.21.(수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	책임자	국 장	위충기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김현돈	(02-3145-7130)
	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 금융보안관제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기철	(02-3495-9300)
		담당자	팀 장	황종모	(02-3495-9310)

**금감원과 금보원은 통합관제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권  
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**

**- 금감원 · 금보원 간 업무협약 체결 -**

## I . 업무협약 개요

-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'25.5.22.(목) 금융보안원 본원(경기 죽전)에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,
-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.

### 금감원 · 금보원 간 업무협약 개요

■ 일시 · 장소 : '25. 5. 22.(목) 09:30~10:15, 금융보안원 본원 강당(2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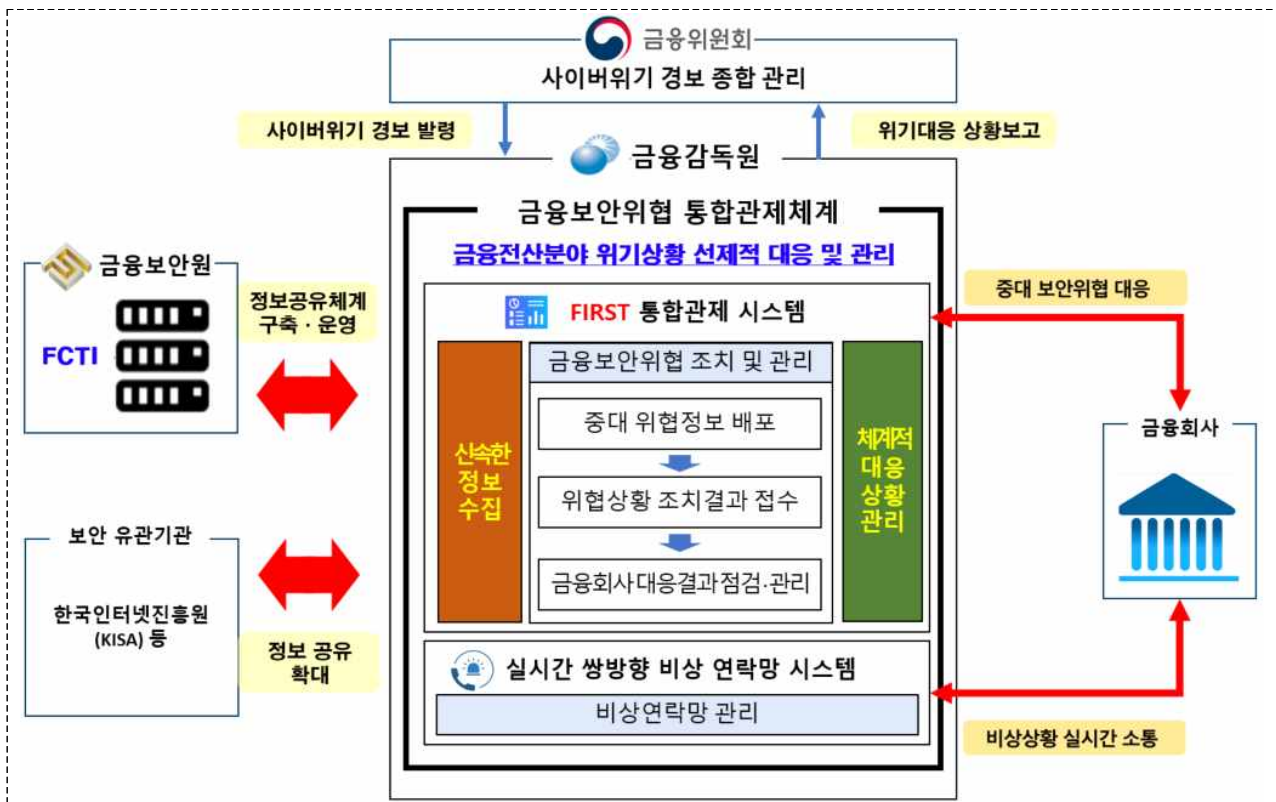
■ 참석자 :

- (금감원) 이복현 금감원장, 디지털IT 부원장보, 디지털금융총괄국장
- (금보원) 박상원 금보원장, 사이버대응본부장, 금융보안관제센터장, 침해대응부장

## II.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업무협약 주요 내용

- (추진 배경)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제3자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출시가 확대되면서
  - 금융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업무를 위탁·운영 중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이버 위협\*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  - 이에 금융감독원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IT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금융권 신속 전파 및 대응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,
  - 금융보안원과의 협력을 통해 ①금융IT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, ②블라인드 모의 해킹, ③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등의 침해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  - 아울러, 금융전산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금융위원회에 금융권 대응 상황을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.

< 통합관제시스템 구성도 >



- **(협약 내용)**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IT 보안 부문의 상호협력을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.

### ① 금융분야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공유체계 구축·운영

- 신종 사이버 위협 발견 시 금융감독원 통합관제시스템(가칭 'FIRST\*')을 통해 즉시 공유하고, 금융회사의 대응 상황을 양기관이 공동 점검·관리

\* 금융전산분야 위기상황 대응 및 감시 컨트롤타워

**FIRST** : **F**inancial-IT **I**ncident **R**esponse **S**urveillance control-**T**ower

### ②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훈련 공동 실시

- 금융회사 등을 대상\*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, 버그바운티\*\* 등의 침해사고 대응 훈련을 공동 주관하고 정기적으로 실시

\* 외형성장 대비 보안역량이 낮거나 기본적인 보안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 위주로 선정

\*\*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으로 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 및 학생 등이 참여하여 외부의 시각과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신종 보안 취약점을 찾아보는 제도

### ③ 금융권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협력

- 금융보안 위협 대응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관한 인적·기술적 협력 강화

#### <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개선 >

구 분	현행 문제점	개선 내용
①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및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문, 유선, 이메일 등 수작업 의존</li> <li>■ 채널별 정보 혼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스템 연계를 통한 <b>중요 사이버 위협 정보 신속 공유체계 마련</b></li> <li>■ 통합관제시스템을 <b>금융전산 위기대응 공식 채널로 운영</b></li> </ul>
② 금융회사의 환류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일방향·수동적 정보 전파에 의존</li> <li>■ 금융회사 조치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위협정보 및 조치사항을 <b>신속 전파하고 시스템으로 조치결과 입수</b></li> <li>■ 금융회사 <b>대응조치의 적정성</b>을 체계적으로 <b>평가·관리</b></li> </ul>
③ 비상연락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유선, SMS 등에 의존하여 <b>금융권 전체에 비상연락</b>해야 할 경우 <b>한계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실시간 쌍방향 연락체계 구축<sup>주)</sup></li> </ul>
<b>기대 효과</b>	➔ 최근 통신사, GA 사례와 같은 <b>침해사고</b> 발생시 금융권 정보 전파, 영향 파악·조치 등 더욱 <b>신속·정밀하게 대응</b> 하고 <b>보안 사각지대 최소화</b>	

주) 카톡 등을 활용하여 다수 금융회사에 긴급 설문양식(Yes/No형태, 단문 메시지 형태 등)을 배포하고, 금융회사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즉시 응답토록 시스템 개발 (☞ [붙임 참고](#))

### Ⅲ. 양 기관 발언요지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“오늘 이 자리는 금융보안의 파수꾼 역할 수행하는 양기관이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”라고 언급하며,
  - “금융권 침해사고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신뢰가 훼손되어 국민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보안 위협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한편, 금융권 전체의 보안 역량도 함께 끌어 올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습니다.
  - 또한, “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함께 구축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24시간 365일 적시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습니다.
-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“두 기관의 전문성과 이번 협력 모델로 금융분야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IT의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언급하며,
  - “앞으로 금융감독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보안의 방과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### Ⅳ.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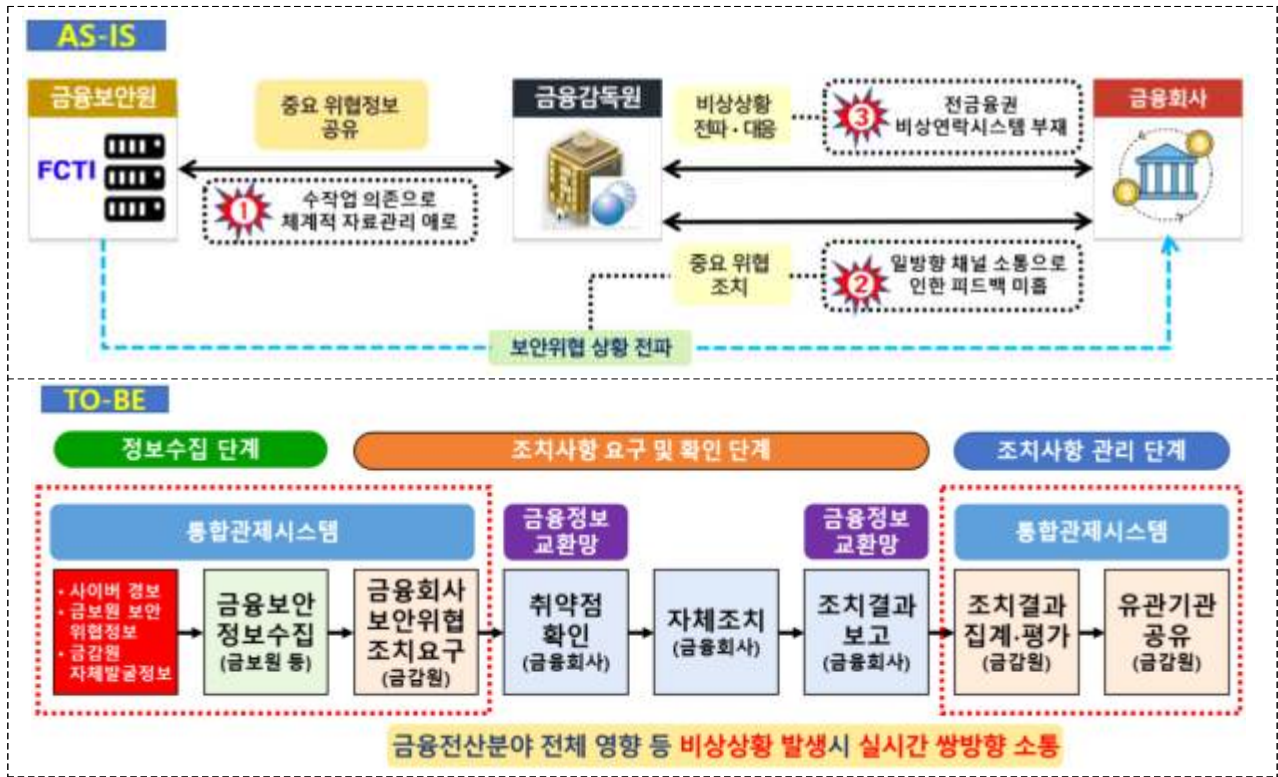
- 금융감독원은 ‘25.6월 중 금융보안원과 연계하여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개시하고, 금년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금융보안원과 함께 6월부터 3개월간 버그바운티(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)를 개최하고, 9월에는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도 실시하여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.
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정부·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,
-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율보안 역량과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## 붙임

##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

###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전·후 비교



### 금융회사와의 실시간 쌍방향 비상연락 체계

